



2025년
제3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트럼프 2기 이후 세계 정세 변화와 서울의 대응 전략

7. 21. (월) 15: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2025년
제3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트럼프 2기 이후 세계 정세 변화와 서울의 대응 전략

7. 21. (월) 15: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프로그램

15:00-15:15 **개회식**

개회사 **오 균** | 서울연구원장

축사 **임춘대**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15:15-16:00 **주제발표**

사회자 **신민철** |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발표자 **[발표 1]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강구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발표 2] 트럼프 관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성근 | 산업연구원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장

[발표 3] 트럼프 2기 관세 협상과 서울경제
박희석 |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6:00-16:05 **휴식**

16:05-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이윤수**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토론자 **김진하** | 서울연구원 경제모니터링연구단장

오지윤 | 명지대학교 경상·통계학부 교수

정호성 | 동덕여자대학교 금융융합경영학과 교수

17:00-17:05 **폐회식**

마무리 및 폐회



2025년
제3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트럼프 2기 이후 세계 정세 변화와 서울의 대응 전략

7. 21. (월) 15: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목 차

주제발표

- [발표 1]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1
강구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 [발표 2] 트럼프 관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5
박성근 | 산업연구원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장
- [발표 3] 트럼프 2기 관세 협상과 서울경제 27
박희석 |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발표 1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2025년
제3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트럼프 2기 이후 세계 정세 변화와 서울의 대응 전략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강구상 북미유럽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gskang@kiep.go.kr

2025. 7. 21(월)



I.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영향

II. 산업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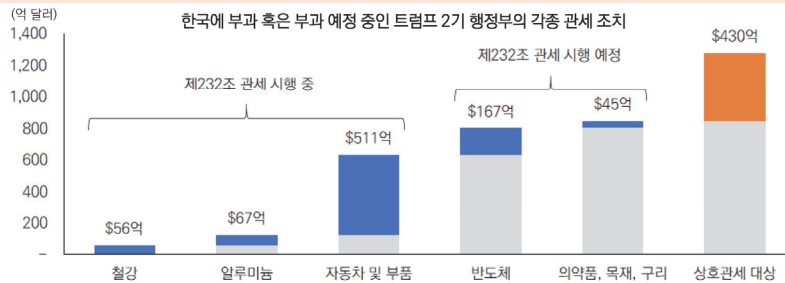
III. 시사점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영향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개괄

빠른 속도로 관세 정책을 시행중인 트럼프 2기 행정부

- [불법 마약 및 이민 관련 관세] 취임 전부터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엄포를 놓은 뒤 시행 중
 - [중국] 전 품목에 대한 20(=10+10)% 관세 부과 중임.
 - [멕시코, 캐나다] 초기 25% 관세 도입했으나, USMCA 대상 수입액은 무관세, 캐나다산 에너지 및 비료, 멕시코산 비료에 대해서는 10% 관세 부과로 한 발 물러섬.
- [품목 관세] 칠감,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관세 도입과 함께 스구리(8/1), △반도체, △의약품, △목재, △해심광물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예정임.
- [상호관세] 전세계에 10%의 기본 관세와 함께 차등관세 부과(차등관세 부과는 8월 1일까지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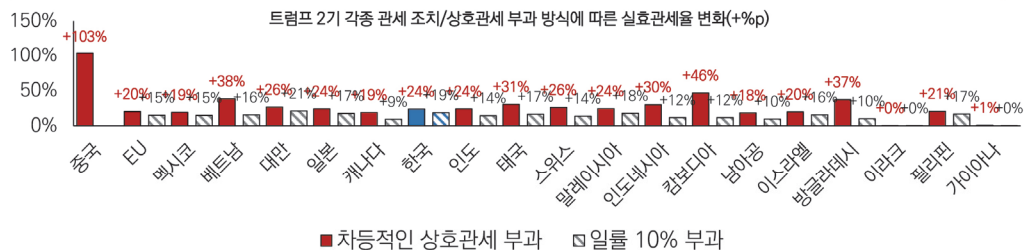
주: 반도체의 경우 백연과의 반도체 품목에 대한 각서를 기준으로 할 때, 칠감, 알루미늄, 자동차(부품 포함)는 각 제232조 관세에 대한 포고령을 바탕으로 할 때, 칠감과 알루미늄은 파생상품을 포함함. 제232조 관세는 HTSUS 상으로는 검치는 범위기 존재함에 유의해야 함. 상호관세 대상은 제232조 관세 대상에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2에 기재된 품목을 제외함. 의약품, 목재, 구리는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2에 나타난 품목들을 바탕으로 저자가 유추해 분류함. 2024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강구상, 김혁중, 박은빈 (2025)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바탕으로 최근 상황 반영해 업데이트됨.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영향

상호관세

상호관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관세 조치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

- [범위] 제232조 품목과 부속서2의 품목을 제외하면 2024년 기준 미국 전체 수입액(\$3.3조)의 대략 절반이 상호관세 대상임.
 - ✓ 시행하자마자 13시간 여 만에 90일간(7월 8일까지) 차등관세 부과 유예하였으며,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 다시 연장
 - ✓ 연방 국제통상법원에서 무효 조치했으나, 다시 항소법원에서 무효 판결 집행을 보류함.
- [국가간 차이] 국가별 특성에 따라 일률, 차등관세 여부의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음.
 - ✓ 제232조 관세(중화학제품 위주)에 주로 영향을 받는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국가는 차등관세 유예 여부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짐.
 - ✓ 경공업제품 주로 수출하는 개발도상국은 차등관세 유예 여부가 매우 중요함.
 - ✓ 자원수출국(이라크, 가이아나)은 상호관세나 제232조 관세 영향이 거의 없음.



주: 미국 상위 20개 수입국을 선별해 표시함. 앞선 장표의 주석의 가정을 바탕으로 제232조 관세가 모두 시행중인 상태를 가정함. 중국, 멕시코, 캐나다는 불법마약 관련 관세를 포함함. 멕시코와 캐나다는 '일률 10% 부과'에서 불법마약 관련 관세가 사라질 때를 가정함. 자료: 강구상, 김혁중, 박은빈 (2025)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바탕으로 최근 상황 반영해 업데이트됨.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영향

불법 마약 및 이민 관련 관세

불법 마약 및 이민 관련 관세

- [관세 만능주의] 거의 모든 문제를 관세를 통해 해결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스탠스
 - ✓ 트럼프 1기 때 멕시코에 국경 위기(border crisis)를 이유로 IEPPA를 활용한 5% 관세부과를 시행(2019. 6. 10)해 향후 25%까지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멕시코와의 협의로 관세부과 계획은 취소
 - ✓ 양안 갈등, BRICS의 달리 기축통화 대체 논의 등에도 관세부과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등 통상 외적인 이슈를 관세로 해결하고자 함.
- [멕시코, 캐나다] 취임 전 25% 공언했으나 수 차례 연기된 끝에 USMCA 원산지 기준 충족하는 수입액 관세부과 대상에서 배제
 - ✓ [EO 14193, 14194] 초기에는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부과 예정이었음(2월 4일 시행). 캐나다산 에너지에는 10% 부과함. (2025. 2. 1)
 - ✓ [EO 14197, 14198] 3월 4일로 시행일 변경 (2025. 2. 3)
 - ✓ [EO 14226, 14227] 상무부 장관이 시스템 마련할 때까지 De Minimis 관세 면제 철회 계획을 일단 보류 (2025. 3. 2)
 - ✓ [EO 14231, 14232] 비료(potash)도 25→10% 관세부과, USMCA 원산지 기준 충족하는 수입액은 관세 면제 (2025. 3. 6)
- [중국] 중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경하게 관세 부과 중임
 - ✓ [EO 14195] 중국에 대한 10% 관세부과 (2025. 2. 1)
 - ✓ [EO 14200] 상무부 장관이 시스템 마련할 때까지 De Minimis 관세 면제 철회 계획을 일단 보류 (2025. 2. 5)
 - ✓ [EO 14228] 20%로 관세를 인상 (2025. 3. 3)
 - ✓ [EO 14899] De Minimis 관세 면제 철회하고 우편물에 대해 Ad Valorem 30% 혹은 \$25/건 (5월까지), \$50/건 (6월부터) 관세 부과함. (2025. 4. 2)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영향

제232조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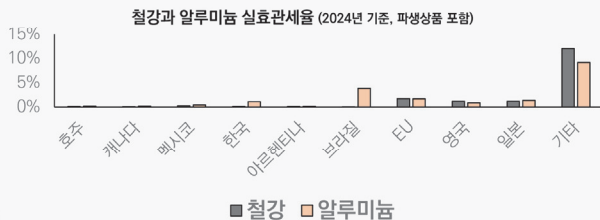
트럼프 1기 & 바이든

철강 (25% 관세)

- [면제] 호주, 캐나다, 멕시코
- [쿼터]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 [할당관세] EU, 영국, 일본

알루미늄 (10% 관세)

- [면제] 호주, 캐나다, 멕시코
- [쿼터] 아르헨티나
- [할당관세] EU, 영국



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포함) 관세 대상 품목들에 대한 2024년 기준 실효관세율임.
 자료: US Census 자료 활용에 저자 작성.

트럼프 2기

- 트럼프 1기 &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별 협약은 모두 무효화
- 기존에 비해 철강과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품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일부는 할당과세
- 미국 수입기업이 신청하던 관세 면제 조치가 사라짐
 - ✓ 2월 10일부터 BIS가 추가 접수를 받지 않으며 기존 심사 중이던 사안도 모두 일괄 거부됨.
-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확대(6/3-)
 - 다만, 트럼프 1기-바이든 행정부까지 결국 모든 철강, 알루미늄 분야에 대한 국산화는 어렵다는 것이 나타남...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영향

제232조 관세: 자동차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시행

자동차 및 부품 (25% 관세)

- [완성차] 일반적인 승용차와 픽업 트럭(5톤 이하)을 대상으로 함.
- [부품] 타이어, 유리, 비금속, 엔진, 발전기 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

USMCA

-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수입액에 대해서는 미국산 기여분을 제외하고 관세 부과

자동차와 부품 실효관세율 (2024년 기준)



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에 대한 2024년 기준 실효관세율임.
자료: US Census 자료 활용에 저자 작성.

트럼프 2기

- [수입 동향] 관세 발표와 시행일 간 격차가 짧아 1~2월 수입액에는 큰 영향 없음.
 - ✓ 자동차: 멕시코(-5%), EU(-9%), 일본(-7%), 한국(-18%), 캐나다(-10%), ...
 - ✓ 자동차 부품: 멕시코(29%), EU(-19%), 일본(-8%), 한국(-7%), ...
 - ✓ 보통 자동차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2군 방으로 25% 관세 부과가 그대로 가격에 전가되면 50%가량 수요 감소할 수 있음.
- [후퇴 가능성] 관세 면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포고령에 적혀 있지만, 자동차 부품 관세 일부 면제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함.
 - ✓ 결국 관세부과 중복 범위를 재조정하고, 부품관세 인하하는 취지의 새 행정명령과 포고령을 발표...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영향

제232조 관세: 반도체

반도체에 대한 제232조 관세 예고

반도체 제조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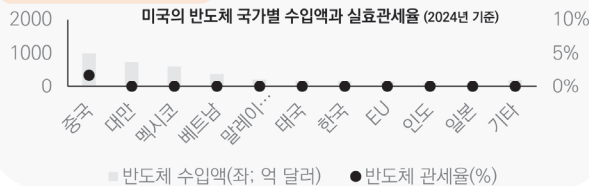
미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높은 총산출에 비해 상당 부분이 수출되어 국산화율은 15% 수준으로 추정됨(2017년 공급사용표 기준)

반도체 반제품 (디스크리트, 집적회로)

Sub-10nm 로직반도체는 이제 생산여력을 갖추기 시작했다지만,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여력은 부족함

컴퓨터, 컴퓨터 부품, 스마트폰, SSD, 디스플레이 모듈, 모니터

자체적인 생산기반이 부족한 분야로 국산화율이 9% 수준으로 추정됨(2017년 공급사용표 기준)



영향 및 평가

- [반도체 제조 장비] 국내 공급망 재조정이 있겠으나 한계가 존재함.
 - ✓ AMAT, Lam Research, KLA 등의 미국내 생산을 미국 내 공급 위주로 전환해 국산화율을 30~40%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겠으나 대신 수출도 동반 감소할 수 있음.
 - ✓ 미국이 장비 측면에서는 강국이지만 모든 공정의 장비를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는 없음.
- [반제품 & 완제품]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반도체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 ✓ 삼성전자(파운드리), TSMC(파운드리), 마이크론(메모리), 인텔(칩단 로직반도체) 및 레거시 반도체 투자가 이머시고 있으나 본격적인 캐파 확장은 시간 필요함.
 - ✓ 애플 등이 투자 계획 발표했으나, 컴퓨터 부품, SSD, 디스플레이 같은 분야도 과연 국산화 가능할지는 의문임.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영향

제232조 관세: 향후 도입 예정인 품목 관세

상무부는 제232조 관세에 따른 조사 절차를 진행 중임 (최대 270일 소요)



대체로 시행하겠다고 계속 예고했으나 미뤄지고 있음
→ 어느 범위에서 시행할지, 필요한 관세 면제 절차는 없는지 고민 중일 것으로 추정됨

정말 하는 것인가?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자동차에 대한 제232조 조사 후 상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1. 추가 협상 진행, or 2. 자동차 25% 관세 시행(USMCA side letter 제외), Or 3. SUV 및 CUV에 대한 35% 관세 시행을 권고함.
- 당시 한국은 국가안보적 관계를 고려해 관세 면제 국가로 지정하기를 상무부 장관이 권고
- 결국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과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두번째 옵션을 기반으로 시행됨.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영향

향후 관세 정책 전망

관세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

금융시장 반응	트럼프 예산법안(OBBBA) 발효(2025. 7. 4) 국채금리 폭등 장기화 시 부채 수준 감당이 어려울 수 있음.	당분간 고금리 유지
경제성장	단기적으로는 수입 급증으로 경제성장률에 악영향 현실화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 큰 반등이 있는지 주목해야 함.	각 기관의 전망치대로 미국 경제성장률 1.3~1.8% 수준 유지
물가	수입 중간재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 보임. 차등관세 부활 시 국산화를 낮은 경공업 물가 폭등 가능	미국 물가수준 1~2% 상승
타국의 반응 및 협상	각개격파를 위해 최대한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 지으려고 함. 미국은 협상을 빨리 끝내려 하지만 장기전 될 가능성이 있음	법적 다름과는 상관 없이 관세 정책은 지속 추진
법적 문제	[행정부 패스] 다른 관세 정책 등장 필요 + 상호관세법 제정 [행정부 승수] 행정부 관세부과를 막을 수단이 별로 없음	2026년에는 지금과 같은 페이스로 관세 정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미국 내 반응	중간선거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감소 시 의회도 더 이상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음.	

관세 정책의 향방

- 불법이민 및 펜타닐 관세
 - ✓ 예정된 USMCA 검토(2026. 7)를 앞둔거 최대한 2025년 내로 마무리 짓고 불법이민 및 펜타닐 관세 등을 둘러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큼.
 - ✓ 중국과는 별도의 무역협상을 추진하면서 불법이민 및 펜타닐 관세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임.
-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실패적이었다고 평가
 - ✓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도 생산량이 상승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미국 내 건설업 및 자동차 생산에 대한 타격이 별로 크지 않다면 현행 관세 정책 그대로 추진할 것임.
 - ✓ 다만, 투자 협력을 협상 의제로 제시하는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임.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 아직까지는 협상력 유지를 위해 관세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 있으나, 어느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협상이 이루어지면 다음 정권으로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음.
- 기타 정책
 - ✓ 미국 내 약가 인하를 도모하면서 제약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도 시행하는 모순적인 정책 등의 조정이 필요해 보임.
 - ✓ 반도체 관세도 당장 생산기반이 없는 분야에 관세 시행을 앞두고 있어 조정이 필요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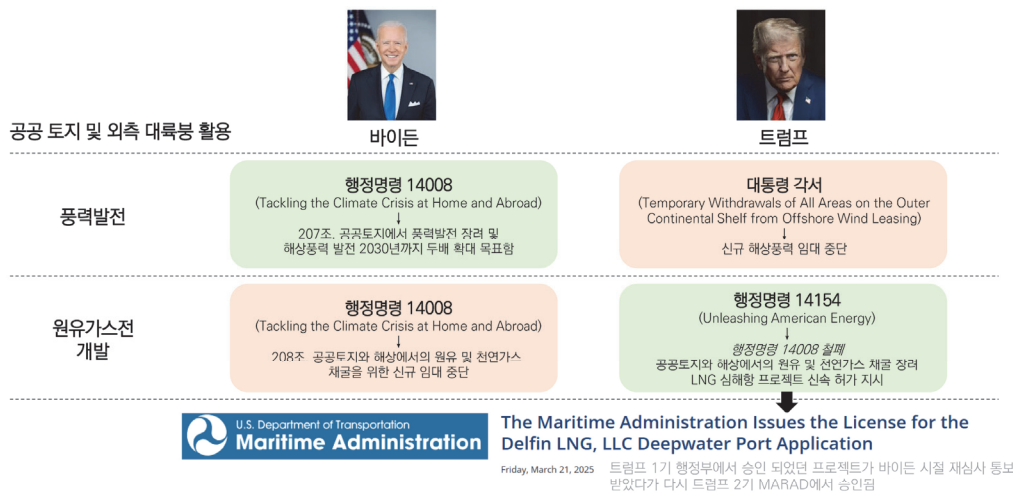
I.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영향

II. 산업별 정책

III. 시사점

산업별 정책

풍력발전 규제 강화, FLNG 개발 확대



산업별 정책

제약바이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방위적 폭격

EO 14273, EO 14297
MFN Rule 재등장 및
가격인하 압박

- [조사] 상무부와 USTR는 해외 국가들이 제약 기업들에 대해 공정가격보다 낮게 제약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미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점검
- [직접구매] 보건복지부 장관은 MFN 가격으로 환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촉진
- MFN 가격제
 - a. 일단 말로 해보고,
 - b. 안된다면 △MFN 가격제 제도 공식 도입, △수입 제한, △FTC 장외 비경쟁 행위 제한 조치, △상무부 장관이 제약제품 혹은 전구체 수출통제 시행, △기존 제약제품 승인 취소 등을 시행함.

일단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이 없는 의약품부터 시행

보건 R&D 대폭 감축
트럼프 OMB는 아래와 같은 재
량 지출안을 의회에 제출

- 증액 (1건)
- MAHA (Make America Healthy Again)
 - ✓ 대통령 직속 MAHA 위원회에 5억 달러 예산 배정: △영양, △신체 활동, △건강한 생활 방식, △약물 및 치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 △새로운 기술 습관의 영향, △환경적 영향, △HHS 전반의 식품 및 약물 품질과 안전 문제 다룰 예정
- 감액 (상당수)
- 보건자원 및 서비스국(HRSA): -\$17.32억
 - CDC: -\$35.77억
 - NIH: -\$179.65억
 -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국(SAMHSA) 폐지: -\$10.65억
 - 의료 연구 및 품질국(AHRO): -\$1.29억
 - CMS: -\$6.74억
 - 전략적 준비 및 대응 관리국(ASPR): -\$2.4억
 - AHA: -1.8억

대통령의 정책 방향일 뿐
의회에서 과연 승인할지는 별개의 이슈

미국 내 생산 강화
규제완화 시동

트럼프 1기 행정부

- 행정명령 13944
 - ✓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한 정부 주달 시장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것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지시
 - ❖ FDA는 당시 필수약품 리스트를 정리해발표
- ✓ 동시에 USTR에게 기존 FTA와 WTO 정부 조달협상을 검토한 뒤 FDA가 발표한 필수 의약품 리스트에 있는 사항을 제외하도록 지시함.

트럼프 2기 행정부

- 행정명령 14293
 - ✓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FDA 규제 완화 지시
 - ✓ 해외 제조 시설에 대한 조사 실시
 - ✓ 제약 제조시설 설립에 필요한 EPA 측 규제 완화
- 아직 1기 때와 같은 정부조달 규제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무역협상과 함께 곧 등장할 수 있음.

산업별 정책

조선산업 부흥 정책

미국 해양 지배력 복구(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EO 14269)

미국의 조선 및 해운업 지배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총력전



산업별 정책

원자력 발전 산업 부흥 정책

원자력 발전 산업 부흥을 위한 행정명령 4연타

<p>국가 안보를 위한 첨단 원자로 기술 도입 (EO 1429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년 9월 30일까지 군 기지 내 원자로 운전 개시 시 센터를 국방 핵심 인프라로 지정하고 에너지부 시설에 원자로 배치 추진 미국 원전 수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부는 원자력 협정 체결 (20개 이상 목표) 및 경신 주도 상무부와 국방부는 기술 수출 승인 30일 내 처리 수출금을 지원 확대 향후 4년 내 원자력 도입 가능성 높은 국가 중심으로 원자력 관련 금융 및 규제 시스템 안정성, 양자 협안 등 조화 평가 미국의 다국적 개발은행 참여를 레버리지로 상대국 대상 금융 지원 확대 	<p>핵규제위원회(NRC) 개혁 (EO 143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규제위원회가 허가 결정을 내릴 때 경제 및 국가안보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지시 DOGE의 가이드에 따라 조직 개편 NRC 규제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원전 라이선스 심사는 18개월 내로 원전 라이선스 재심사는 12개월 내로 진반적인 심사기준 완화 주문 <p>에너지부 원자로 시험 체계 개혁 (EO 143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일 내로 시험자격 원자로 기준 마련, 90일 내 에너지부 및 국립연구소들의 절차를 개정해 신청일로부터 2년 내 가동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에너지부 계약 하 국립연구소 외 원자로 건설, 운영,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하며, 2026년 7월 4일까지 원자로 3개 이상 완공 도달 목표 에너지부 원자로는 NRC 규제 대상이 아님 	<p>원자력 산업 기반 재건 (EO 143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 국내 핵연료 사이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E는 핵연료 사이클에 대한 보고서를 240일 내로 제출하고, 국내 우라늄 변환 및 농축 능력 확충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함. 불용 플루토늄 희석 폐기 프로그램 중단하고 산업용 연료로 전환 추진 에너지부의 초과 우라늄 관리정책 업데이트로 핵무기 현대화와 연계 국방생산법에 따라 민간 원자력 기업과 지방적 협력 체결 추진(LEU, HALEU 공동 조달),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및 공급망 협력, 필요시 금융 지원 [제4조] 원전 재가동, 신규 건설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원전 출력 5GW 상황 2030년까지 설계 완료된 신규 대형 원자로 10기 건설 착수하며 LPO 통해 금융 지원 180일 이내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첨단 원자력 기업에 보조금, 융자, 투자 우선 지원 [제5조] 원자력 인력 양성
--	---	--

산업별 정책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후퇴

친환경차 보조금은 사실상 폐지

- Section 30D 소비자용 친환경차 보조금**
 - 2025년 9월 말까지(기존 2032년) 운영
- Section 45W 상업용 친환경차 보조금**
 - 2025년 9월 말까지 운영
 - 2025년 5월 12일까지 계약된 견에 대해서는 2032년 내 차량이 서비스 되어도 보조금 인정

친환경차 보조금(30D, 45W)이 폐기되면?

	(1)	(2)	
		IRA	Return to Pre-IRA
	(baseline)	Eliminate EV Credits	30D with phaseout
Panel (a): Market Aggregates under Counterfactual Scenario			
1. Vehicle registrations (000s/year)	10,080	10,006	10,530
2. US firms (000s/year)	3,363	3,304	2,656
3. Foreign firms (000s/year)	6,415	6,702	6,875
4. EV registrations (000s/year)	1,181	967	1,095
5. US firms (000s/year)	805	505	589
6. Foreign firms (000s/year)	349	312	506
7. EV market share (%)	11.2	8.33	10.4
8. Lease share, within EVs (%)	29.3	12.2	13.0
9. US assembly share, within EVs (%)	70.5	59.9	48.5

-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보조금이 존재하던 상황에 비해 수요량이 26.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기업의 전기차 판매량은 37.1% 감소
- 해외 기업의 전기차 판매량은 2% 감소
- 리스 자동차 판매량은 69.5% 감소

자료: Allcott et al. (2024) "The Effects of "Buy American" Electric Vehicles an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NBER Working Paper 33032.

배터리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세액공제가 상당수 후퇴됨 + 대중국 견제 확대: 위기인가 기회인가?

- | | | |
|--|--|--|
| <p>Section 45X 첨단제조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몰기한은 2032년까지로 유지됨. 다만, 풍력발전은 2027년으로 앞당겨짐. 2028년부터는 AMPC가 비환급성(제3차 판매 허용 X)으로 바뀜 FEOC 조건이 새롭게 부과됨. | <p>Section 45Y 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IT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정 후 1년 뒤에 시작되는 공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27년 말일을 기점으로 ITC 종료 첨단 원자력 시설에 대한 ITC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032년까지 지급됨. FEOC 조건이 새롭게 부과됨. | <p>Section 45Y 청정전력 생산세액공제(PT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정 후 1년 뒤에 시작되는 공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27년 말일을 기점으로 PTC 종료 첨단 원자력 시설에 대한 PTC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032년까지 지급됨. FEOC 조건이 새롭게 부과됨. |
|--|--|--|

I.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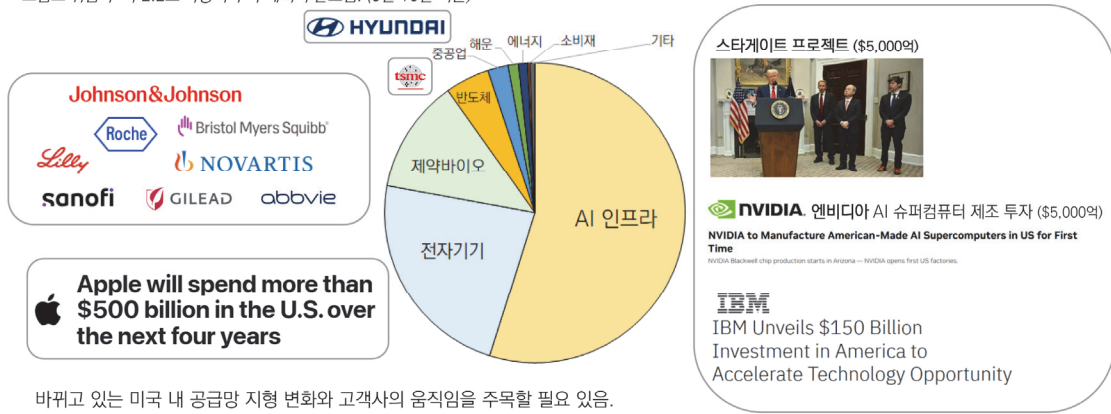
III. 산업별 정책

III. 시사점

시사점

미국 내 투자 동향

미국 내 △AI 인프라, △전자기기, △제약바이오, △반도체, △중공업 투자가 상당한 강세를 띠고 있음 → 선제적인 대응 중
 트럼프 취임 후 약 2.2조 기량의 투자 계획이 발표됨. (5월 16일 기준)



바뀌고 있는 미국 내 공급망 지형 변화와 고객사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 있음.

시사점

新정부 출범과 업계 측 의견 제시 확대

(언론보도를 통해 알아보는) 협상 방향

- 한미 간 자세한 협상 과정은 알 수 없으나, '윈스톱쇼핑'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단순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접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산업 및 투자 협력과 관련한 부문도 관세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됨

-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관세율이 변하고 있음.
- 법적인 시비로 인해 관세 정책이 과연 시행될 수 있는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 아직 시행되지 않은 품목별 관세 정책들도 존재하며 국내 구제대책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 최종적인 관세 형태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임.



업계 의견 수렴 확대

- 관세 인하 자체에 매몰되기 보다는 이번 협상을 상호 통상환경 개선, 새로운 협력 기회 확대의 장으로 활용해 미국과 win-win 하는 것이 필요함.
- ✓ 평소 미국 시장 접근에 애로사항이었던 비관세 장벽, 정부조달 제한과 같은 사항을 정부 측에 공유할 필요가 있음.
- ✓ 미국과의 산업 협력 기회도 정부 측과 공유해 협상 카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한미간 산업정책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 평소에는 이러한 제안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세 협상을 업계 측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함.

시사점

기업 내부적 대응

단기적 대응

- 관세 인상을 흡수하기 위한 가격 인하, 원가 관리 등의 단기적 대응책도 중요하나 중장기적 대응책도 준비 필요



중장기적 대응

-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대비] 더욱 까다로운, 복잡한 통관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음.
 - ✓ [중국산 제품 및 서비스 사용]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기업들의 통관 절차 및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과 서비스 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입증 요구할 수 있음.
 - ✓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점차 최종재에도 관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각 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원료약품, 핵심광물의 함유량을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 ✓ [관세면제 절차 준비] 관세 정책이 무르익으면 미국 내 피해 최소화 위해 관세 면제 절차가 부활할 수 있음. 사전에 대미 수출품이 미국 내 국가안보에 기여도와 미국 내 대체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고객사와 협의해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산업정책 활용]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탈규제, 수입시장 제한을 위주로 접근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선호 산업에는 금융 지원도 충분히 가능함.
 -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 조선 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 지원도 가능해 보임.
 - ✓ 이 외 트럼프 행정부가 주목하는 AI,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탈규제와 지출이 확대되는 방산 분야, 전통적으로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주목받은 철강, 알루미늄, 핵심광물 등도 미국 내 산업정책 활용이 가능한 분야로 보임.
- [직접적인 미국 진출 고려] 관세 및 산업 정책이 미국 내 기업에게도 시련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 진출을 앞둔 기업은 향후 적절한 인수 합병 기회도 노려볼 수 있음.

감사합니다

발표 2

트럼프 관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성근 산업연구원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장



Seoul
Institute
Policy
Forum

2025년
제3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트럼프 2기 이후 세계 정세 변화와 서울의 대응 전략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제3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트럼프 관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산업구조·정책효과 분석실
박성근
2025.7.21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차례 CONTENTS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25.7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 1 한국의 대미 수출의 특징
- 2 트럼프 관세가 세계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3 결론 및 대응방안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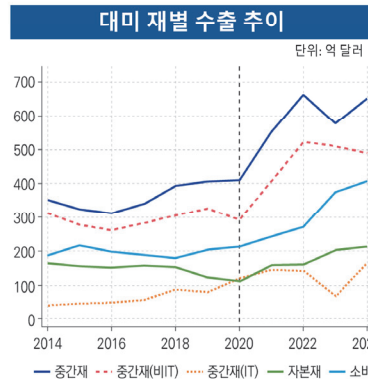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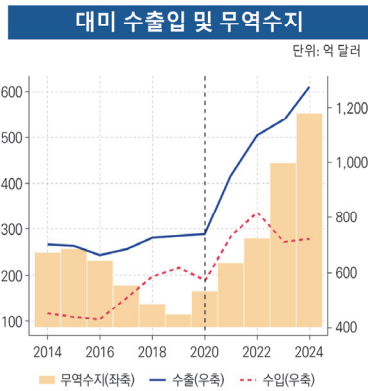
01. 한국의 대미수출의 특징

01. 한국의 대미 수출의 특징

01 장 제목을 입력하세요. 02 03 04 05

수출 확대에 힘입어 최근 4년간 대미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확대

-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의 무역적자를 무역 흑자국의 '관세장벽'으로 간주
 -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자국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이에 따라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에는 2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2025년 4월 9일 발효
- ◆ 2021년과 2022년에는 중간재가, 2023년과 2024년에는 소비재 수출이 무역수지 확대에 기여
 - 대미 무역수지는 2015년 258억 달러를 상회한 이후, 2020년에는 166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는 280억 달러, 2024년에는 560억 달러까지 크게 확대
 - * 대미 총수출(억 달러): (2020) 741 → (2022) 1,098 → (2024) 1,278



자료: 관세청.
주: UN의 BEC(Broad Economic Category) 분류 적용, IT는 산업부 MTI 기준 반도체(831)와 컴퓨터(813).

01. 한국의 대미 수출의 특징

01 장 제목을 입력하세요. 02 03 04 05

2020년 이후 자동차(소비재)를 선두로 중간재·자본재 품목의 수출이 빠르게 확대

- ◆ 2020년 이후 자동차를 필두로, 일반기계(자본재)와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중간재의 수출이 규모와 속도 면에서 모두 빠르게 증가
 - 소비재 100%인 자동차의 2024년 수출은 2020년 대비 120% 이상 성장하면서, 2020년 이후의 수출 확대를 주도하고 자본재 비중이 높은 일반기계와 선박도 각각 75.3%, 1,656%나 증가
 - 중간재 품목 중 반도체(IT)는 2024년에 10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20년 대비 43.2% 증가하고, 석유제품,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주요 비IT 중간재들도 2020년 대비 100% 이상 증가

표. 주요 품목별 대미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순번	업종	주요 재별 비중(%)	2020년 (A)	2024년 (B)	'20년 대비 '24년 증감	'20년 대비 '24년 증감률
1	자동차	소비재(100)	157.6	347.4	189.9	120.5
2	기타	중간재(58) 자본재(19) 소비재(13)	157.1	256.0	98.9	63.0
3	일반기계	자본재(67) 중간재(31)	85.9	150.6	64.7	75.3
4	반도체	중간재(98)	74.6	106.8	32.2	43.2
5	석유제품	중간재(100)	23.3	51.1	27.8	119.6
6	자동차부품	중간재(98)	54.9	82.2	27.3	49.6
7	이차전지	중간재(100)	12.2	38.7	26.5	216.8
8	석유화학	중간재(100)	18.1	42.8	24.7	136.9
9	철강	중간재(97)	22.3	43.5	21.1	94.6
10	컴퓨터	중간재(90)	43.5	57.8	14.4	33.1
11	바이오헬스	중간재(69) 자본재(27)	14.8	25.6	10.8	73.3
12	가전	소비재(44) 자본재(40)	29.2	38.7	9.4	32.3
13	선박	자본재(84) 중간재(16)	0.4	6.8	6.4	1,656.2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 안은 2022~2024년의 산업 내 재별 비중, 석유화학은 혼합(MIXED)을 중간재로 간주

01. 한국의 대미 수출의 특징

01 장 제목을 입력하세요. 02 03 04 05

최근 미국 제조업의 한국산 제품, 특히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

- ◆ 미국의 한국산 중간재·자본재에 대한 생산탄력성이 상승해 왔으며, 특히 자본재에서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짐.
 - * 생산탄력성: 미국 생산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이에 따라 증가하는 한국산 수출의 비율(%포인트)
 - 2016년 대비 2024년에는 중간재(IT 제외)가 1.21에서 1.28로, 중간재(IT)는 0.38에서 0.58로 상승했으며, 자본재도 1.05에서 1.10으로 4년 만에 큰 폭으로 상승
 - 이러한 우리 자본재와 중간재에 대한 미국 제조업의 생산탄력성 상승은 미국 제조업 생산과 한국의 중간재·자본재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
 - 다만, 소비재는 2020년까지 소폭 상승한 뒤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동 기간 자동차 수출의 급증은 미국의 소득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시간변동 생산(소비재는 소득) 탄력성



자료: 산업연구원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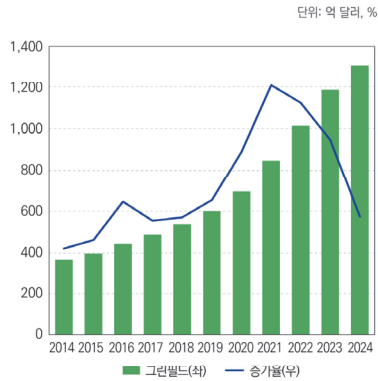
01. 한국의 대미 수출의 특징

01 장 제목을 입력하세요. 02 03 04 05

미국 제조업의 한국산 수입 의존도 확대 요인: 1)대중국 견제, 2)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 ◆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 이후 주요 중국산 중간재 수요가 한국으로 이동하며 한국산 수입은 크게 증가하고 중국산 수입은 지속 감소
 - 미국의 대중 수입 추이(USITC, 억 달러): (2015) 5,040 → (2019) 4,725 → (2024) 4,626
- ◆ 최근 우리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대미 투자 확대 → 한국산 산업재 조달 →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 → 연계성 강화」의 흐름 형성
 -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운영에 필요한 제품의 59%를 여전히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진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임.
 - * 해외 진출 기업들의 한국 수입 비중(2023년, 한국수출입은행): 미국 59%, 중국 24.5%, 전체 42.2%
 - 이는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물가로 인해, 진출 기업들이 국내 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됨.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직접투자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주: 누적 순투자금액.

미국 진출 주요 제조 기업

미국 주	기업	투자금액	투자내역
텍사스	삼성전자	370	반도체 파운드리 (3-4나노)
인디애나	SK	220	HBM, 배터리
루이지애나	현대차그룹	210	자동차, 전기로
조지아	SK	220	HBM, 배터리
	현대차그룹	210	자동차, 전기로
	LG	200	세탁기·건조기, 배터리
테네시	LG	200	세탁기·건조기, 배터리
	한화	22	태양광 모듈, 필리조션소
펜실베이니아	한화	22	태양광 모듈, 필리조션소

자료: 박순찬·최은경(2025. 3. 26), "안예선 규제, 박은 트럼프 압박... K제조업, 美에 150조원 투자한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3/26/PTXVZYM43JHBNJVVUJODEWUP3XJ/>(검색일: 2025. 4. 2).

02. 트럼프 관세가 세계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25.7

- 2.1 관세장벽의 영향, 미국과 세계에 이중 부담
- 2.2 관세부과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
- 2.3 주요 산업별 영향 및 주목요소

02. 트럼프 관세가 세계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01 장 제목을 입력하세요. 02 03 04 05

2.1 트럼프의 관세정책

- ◆ 美 트럼프 2기 정부는 취임과 함께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추진, '25.4.2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발표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선언
- ◆ 전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며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품목관세 25%**,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 **상호관세부과**

트럼프 2기 정부 관세 부과 일지

- '25.2.1 •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 '25.2.3 • 캐나다·멕시코에 관세 한달 유예, 중국산 수입품 10%에 대해서는 관세 발효
- '25.3.4 • 캐나다·멕시코에 대해 25%, 대중 관세 20% 발효
- '25.3.6 • USMCA 적용품목에 대해 관세 유예
- '25.3.12 • 모든 국가로부터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 25% 관세부과
- '25.3.26 • 모든 국가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에 대해 25% 관세 부과
- '25.4.2 • 전 국가 대상 상호관세 발표, '25.4.9부터 발효
- '25.4.9 • 상호관세 90일간(7월8일까지) 유예, 10% 최소관세는 유지
•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84% 추가(총 104%) 부과, 일부품목은 145%까지 추가
- '25.5.12 • 미-중 제네바 합의, 상호 관세 10%(실질 30%)로 인하, 90일간 유예
- '25.5.30 •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발표, 6.4일부터 적용
- '25.6.13 • 철강 함유 가전제품(식기세척기, 냉장고, 세탁기 등 8개 품목)에 관세 확대, 6월 23일부터 적용
- '25.6.27 • 미-중 합의: 중국의 희토류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수출 신청을 심사·허가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일부 대중 기술제한을 해제
- '25.7.8 •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가 당초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

KIET 산업연구원

9

'상호관세 발표

>> '25.4.2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준으로 한 상호관세 발표

- USTR은 관세율 변화에 따른 수입 감소가 미국의 해당국 수출액과 같아지는 수준의 관세를 상호관세율로 정의, 미국과 상대국 간 무역수지 적자와 수입액을 기반으로 각국에 대한 관세율 산정
- 4.2일 이후 국가별로 협상을 통해 조정
-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가 당초 7.8일에서 8.1일로 연장
-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25%) 등 품목관세도 부과 중
- *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구리,목재, 트럭, 항공기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중

미국의 협주요국 상호관세율 ¹⁾			
국가	상호관세율	국가	상호관세율
한국	25%	캐나다 ²⁾	0 or 25%
중국 ³⁾	30%	대만	32%
일본	25%	베트남 ⁴⁾	20%(40%)
EU	20%	인도	27%
멕시코 ²⁾	0 or 25%	스위스	32%

품목별 관세 현황			
품목	대상국	세율	발효일
철강, 알루미늄	전세계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50%
		승용차 및 경량 트럭	25%
자동차, 부품 ⁵⁾	(캐, 멕, 영 제외 ⁶⁾)	엔진, 변속기, 전자부품 등	5.3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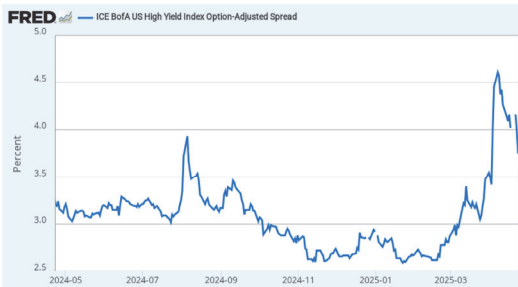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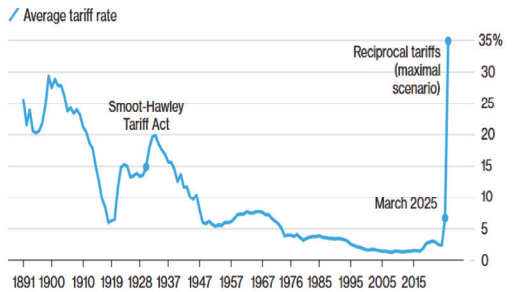
1. 백악관 발표자료와 언론보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멕시코와 캐나다는 일부 품목(에너지 등)을 제외한 비USMCA 품목 및 비원산지 제품에 관세(25%) 적용
3. 5.14일부터 90일간 일시적 적용
4.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40%
5. 미국내 완성차 생산액의 일정비율(1년차: 15%, 2년차: 10%)만큼의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면제
6. (캐, 멕) 자동차, 부품 USMCA 총액시 비미국산 비중예만 관세 부과(단, 부품은 철차 수입시까지 관세 유예)
(영국) 철강, 알루미늄 25%(6.4-), 자동차는 연간 10만대까지 10%(6.30-)

02. 트럼프 관세가 세계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01 장 제목을 입력하세요. 02 03 04 05

2.2 관세 장벽의 영향, 미국과 세계경제에 이중 부담: 불확실성 확대

상호관세의 충격과 시장 불확실성의 증대



Source: Ice Data Indices, LLC via FRED®
Shaded areas indicate U.S. recessions.

KIET 산업연구원

10

트럼프 관세의 경제적 효과

>> 관세 부과의 단기적, 직접적 효과

- 물가상승 압력의 증가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FED의 긴축 통화정책
- 미국 소비자의 구매력 하락 및 수요감소 (최종 가격효과= 상품마다 다름)
- 원자재 및 부품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국내 생산비용의 상승
- 차별적 관세율을 반영한 세계 공급망의 신속한 재구성
-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 불인과 긴축 통화정책으로 인한 미국 달러 가치의 상승

>> 관세 부과의 추가적, 간접적 효과

- 경기불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그 자체가 경제에 영향
-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한 미국 및 전세계 주식가격의 하락
- 미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인한 달러 가치의 하락
- 안전자산으로의 달러의 중요성 하락
- 경기 방어를 위한 미국과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 가능

02. 트럼프 관세가 세계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01 장 제목을 입력하세요. 02 03 04 05

2.2 관세 장벽의 영향, 미국과 세계경제에 이중 부담: 실물경제에 악영향

- ◆ 국제통화기금(IMF) 4월 전망, 세계경제성장률 3.3%(1월 전망)에서 2.8%로 하향 조정
- ◆ PWBm, FRB/US 등 다양한 거시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미국 GDP 0.3-0.7% 감소

관세정책의 글로벌 경제 영향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성장률 3.3%(1월)에서 2.8%(4월)로 하향

-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무채수준,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하방 압력으로 제시
- 주요국 경제성장률 큰 폭의 하향 조정(%): 미국 2.7(1월)→1.8, 중국 4.6→4, 일본 1.1 → 0.6, 독일 0.3 → 0.0, 한국 2.0→ 1.0

▶▶ 다양한 거시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미국 GDP는 단기적으로 0.3-0.7%감소

- 최근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소비·투자 위축을,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저하와 자본 축소를 통해 심각한 GDP 손실과 실질 임금 하락을 초래
- 미국 연방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즉 세수 확보 가능성과 부채 축소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PWBm¹ 모형은 미국의 GDP가 단기적(~2030년)으로 0.4%-0.6% 감소함을 시사
- 관세로 인해 모든 소득계층, 연령계층이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는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제시
- FRB/US² 모형을 이용한 Bloomberg의 분석에서도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GDP를 0.3-0.7% 하락시키고 소비자 물가를 최소 0.1~0.4%p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예정된 모든 관세 시나리오 적용시 GDP는 최대 3.7%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은 2.1%p 상승 전망

관세정책에 따른 미국 경제 영향³

관세 부과 내용	GDP	인플레이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5% 관세부과	-0.4%	0.2%p
철강 및 알루미늄(파생상품포함) 25% 관세 부과	-0.2%	0.1%p
반도체 및 제약 25% 관세 부과시 (예정)	-0.7%	0.4%p
중국 145% 추가 관세 부과	-1.9%	1.1%p
캐나다 및 멕시코 25% 관세부과(USMCA 제외)	-0.1%	0%p
전세계 10% 보편관세 부과 ⁴	-0.4%	0.3%p
계	-3.7%	2.1%p

1.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워튼스쿨 예산모형(PWBm), "The Economic Effects of President Trump's Tariffs", (2025.4.10)

2. Brayton, Flint, Thomas Laubach, and David Reifschneider, "The FRB/US model: A tool for macroeconomic policy analysis." FEDS Notes 2014-04 (2014): 03.

3. Bloomberg, "Tracking Every Trump Tariff and Its Economic Effect" (Updated April 23, 2025)

4. 전세계 10% 보편관세 부과 시 가부과 산업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제외

02. 트럼프 관세가 세계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01 장 제목을 입력하세요. 02 03 04 05

2.3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

- ◆ 상호관세가 유예된 현 상황은 트럼프 당선 이전 공약인 보편관세 부과 시나리오와 가장 유사
- ◆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수준 조정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주요 산업 대미 수출 영향

▶▶ 보편관세 부과에 따라 주요 산업의 대미 수출 감소

- 보편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제조업 전체에서 9.3%~13.1%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부과가 대미 수출을 더욱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
- 현행 관세 체제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USMCA 품목은 무관세를 적용
- 주요 산업 중 반도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내 생산기반이 단기간에 확충되기 어렵고, 최근 AI 등 IT 기술의 발달로 필수재 성격을 보유하여 가격 인상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한 결과

▶▶ 관세 부과 시나리오별 주요 산업 대미 수출 영향(품목별 관세 미고려)

산업분류	보편관세 10% 중국 60% 부과시	보편관세 20% 멕시코·캐나다 10% 중국 60% 부과시
화학	-6.3%	-10.4%
기계류	-10.9%	-16.8%
자동차	-7.7%	-10.2%
반도체	-4.7%	-8.3%
전자	-22.5%	-25.2%
전기전자	-13.6%	-18.1%
제조업 계	-9.3%	-13.1%

자료: 산업연구원(2024)

▶▶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수준 조정 가능성이 중요 변수

- 대중국 관세 부과율이 높아지면 미국과 세계 경제 타격과 우리 기업과의 경합으로 인한 이익이 있으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잉여 생산물로 인한 풍선효과도 우리 경제에 피해

▶▶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 관세는 한국 제조업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산업연관관계를 통해 서비스업 전반에도 상당한 부담을 초래
-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최종수요가 감소할 경우 전체 경제에 미치는 복합적 파급효과 중 약 26%가 서비스업 부문에서 발생
-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7.9조~10.6조원의 부가가치 감소가 예상되며, 이 중 서비스업 부문도 2~2.8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서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서울은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큰 도시로, 대기업 본사와 B2B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집중
-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제조업 수출 감소로 인한 주요 제조 대기업의 실적 악화는 서울 경제 전반에 간접적이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제조업 중심의 외부 충격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 서비스 경제에도 구조적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02. 트럼프 관세가 세계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01 장 제목을 입력하세요. 02 03 04 05

2.3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 주요 산업별 영향 및 주목요소 (1)

- ◆ 대중 고율관세 및 견제 조치로 인해 반사이익 가능성 있으나 산업별 관세 및 상호관세는 우리 산업경쟁력 저하 요인
- ◆ 산업별 주요 정책에 따라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 상이하며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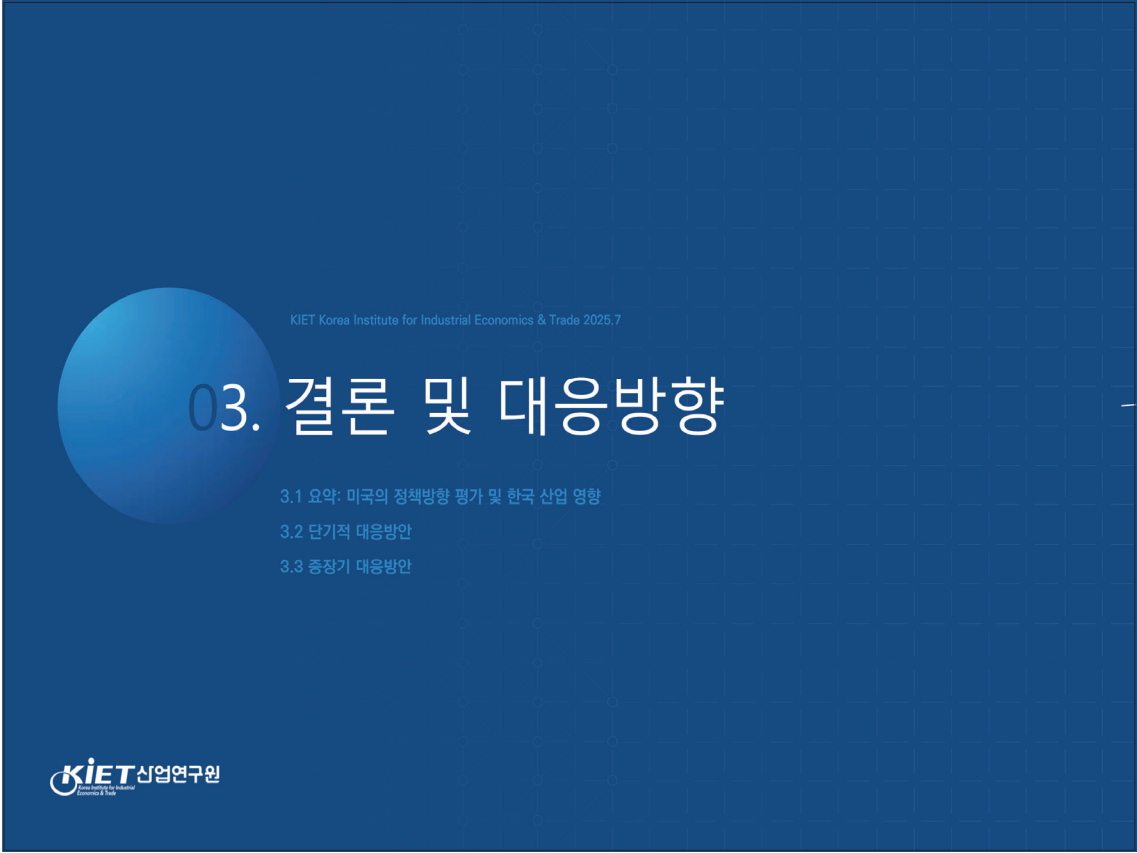
산업	기현실화·실현 가능성 높은 정책	우리 산업 영향	불확실성 높은 정책	우리 산업 영향
반도체	• AI반도체 공급 제한 강화	• 중국 EMS 기업 제재 강화로 한국 기업 점유율 상승 •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 운영 리스크 증가	• 중국산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 미국 시장에서 대체 공급자로서 역할 강화 •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
	•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2nm 이하 공급선 다변화 시도)	• 미국 내 투자 확대 압력 증가	• 반도체 관세부과 범위 및 수준	• 관세부과시 경쟁력 저하
	• 美 소재·설계 수행 기업 대상 25% 추가 세액공제 법안 논의 (STAR Act)	•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기업 경쟁력 저하 • 핵심 소재 미국내 생산확대 압력 증가	•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보조금 및 세액공제 규모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 • 미국 정부의 인텔마이크론 등 자국 반도체 기업 지원 확대 가능성	• 미국 내 반도체 투자 비용 부담 증가 • 한국 기업 경쟁력 저하
자동차	• 내연차 규제 완화	• 전기차 수출 둔화 및 하이브리드차 수요 증가	• 전기차 보조금 철폐 여부 및 축소 수준	•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차 시장 위축
	• 자동차 및 부품 수입관세 인상 (부품은 면제 및 유예 검토)	• 가격경쟁력 약화 및 대미 수출 감소	• 관세 인상 후 부담 전가 방향	• 기업 일부 부담, 중간재 수입국 전가, 최종 소비자 전가여부에 따라 상이한 영향
	•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 반도체 기업의 자율주행용 반도체 및 ASIC 공급 확대 가능성		
배터리	• IRA 생산 혜택 축소 •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철폐 • 내연 기관차 규제 완화	•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및 산업 성장 감소	•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축소 여부	• 기업의 투자비용 증가
	• 중국 배터리 기업 견제	•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 감소 및 한국 기업 반사 이익 가능		

02. 트럼프 관세가 세계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01 장 제목을 입력하세요. 02 03 04 05

2.3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 주요 산업별 영향 및 주목요소 (2)

산업	기현실화·실현 가능성 높은 정책	우리 산업 영향	불확실성 높은 정책	우리 산업 영향
철강	• '25.2.10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 부과	• 가격 경쟁력 약화 및 대미 수출 감소	• 우회수출 방지 위한 원산지 기준 변경 가능성	• 원산지 증명 부담 증가 및 공급망 재편 필요성
	• 제품 소재 공급망 탈중국 가속화	• 한국 기업이 대체 공급처 역할 가능	• 반덤핑·상계관세 적극 활용 및 특정 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적용 확대 가능성	• 추가 관세 부과 및 시장 경쟁력 약화
	• 미국내 리소어링 추진 및 법인세 인하 정책 • 화석연료 생산 규제 완화	• 미국 내 생산 증가로 현지 기업과의 경쟁 심화 • 철강 및 관련 업종 수요 증가		
조선	• SHIPS법 발의(전략상선단 확대, 우방과의 조선 협력 확대 등) • 균형 및 해상 전략 강화	• 미국의 해군 함정 건조 등 한국 조선 수요 및 기술협력 기회 증가		
	• 대중 견제 조치(항만세 부과, 중국에서 선박 수리시 200% 세금 등)	• 중국 조선소 비용 증가로 한국 조선소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 향상		
	• 미국 측의 대한민국 조선 협력 제한	• 기회 증가, 협력 범위 및 실제 발주 규모는 불확실		
의약품	• 관세부과를 통해 필수약품 미국 내 생산 유도	• 현재 수출 물량에 대한 관세 영향은 제한적 • 미국산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경쟁시 관세부과로 인해 경쟁력 저하	•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입법 추진 등 대중 견제 확대	• 생물보안법 제재 대상 기의 영역 중 일부 이전 및 흡수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25.7

03. 결론 및 대응방향

- 3.1 요약: 미국의 정책방향 평가 및 한국 산업 영향
- 3.2 단기적 대응방안
- 3.3 중장기 대응방안

03. 결론 및 대응방향
01 장 제목을 입력하세요 02 03 04 05

3.1 요약: 미국의 관세정책 평가 및 한국에의 영향

>> **명확한 미국의 정책 방향**

- 미국의 **제조업 회귀 및 글로벌 공급망 재구조화 방향은 명확**
 - 선거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순차적으로 현실화
 -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며 유예기간 동안 국가별 협상 시한 부여
 - 유예기간 이후 고율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의 제조 공급 허브 기능 일부 상실 가능성 있으며 현재의 글로벌 분업 구조 변화가 촉발될 전망
- **관세 넘어 환율 무기화 가능성**
 - 8개 비관세 부정행위에서 환율 조작을 첫 번째로 지목, 연방준비제도에 금리 인하 요구
 -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 원인으로 강달러 인식, 관세 인하 협상에 환율 정책에 대한 압박 포함 가능성

>> **단기적 피해 불가피하나 중장기로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

- 대미·대중 수출 비중 높고 캐나다 및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한국 산업의 **현재 공급망 구조상 단기적 타격 불가피**
- 반면, 현재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신속한 구조 변화에 성공한다면 미 시장 접근에 유리한 산업구조 보유 가능**
 - 단순 경쟁자가 아닌 **미국 제조업과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급망 전략 조정 필요
 - **미국 내 생산 확대 및 공급망 현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반도체·배터리·조선·방산·첨단소재 분야에서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 **제조업 수출 감소는 산업연관 효과를 통해 서비스업 전반에도 실질적인 부담**

- 특히 서울은 대기업 본사와 B2B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밀집해 있어, 제조업 부진이 지역 내 소비와 서비스업 고용에 연쇄적인 승수 효과를 유발
- 제조업 충격이 서비스업 고용에도 파급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업 충격에 대비한 고용 안전망 강화,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정시적·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이

1. (수입+수출+미국내 생산)에서 미국 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16

03. 결론 및 대응방향

01 장 제목을 입력하세요. 02 03 04 05

3.2 단기적 대응방안: 관세 협상 전략

- ◆ 미국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산업별 협상 가능성 상이
- ◆ 기술협력,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한 협상안 제시가 필요

관세 협상 전략

>> 미국의 내수대체 가능성 고려하여 상이한 산업별 협상 전략 필요

- 미국 내수시장에서 미국 생산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DMSI(Domestic Market Share Index)¹ 수치는 자동차, 철강이 포함된 산업이 각각 62.5%, 68.3%로 반도체의 29.8%보다 높은 상황(24년 Q1 기준)
- 이는 자동차, 철강 산업이 미국 내수시장에서 수입품의 상당부분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하여 생산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이들 산업에 대한 관세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반면, 자국내 생산능력이 비교적 낮은 반도체, 의약 등의 산업의 경우 단기내 미국내 생산품 대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약의 경우 미국내 의약품 가격 상승에 대한 심리적 반발이 있어 관세 협상에 대한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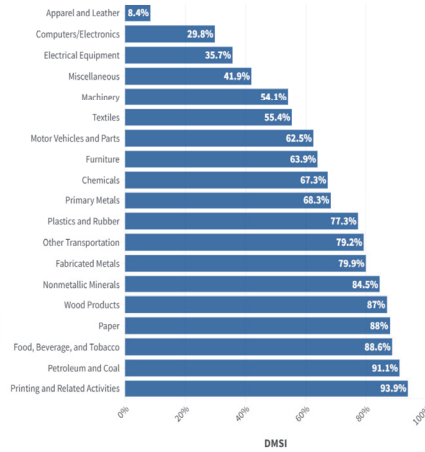
>> 기술협력, 비관세장벽 완화 등의 협상 카드안 제시 필요

- 관세부과 예정 산업에 대해 기술협력, 비관세장벽 완화 등의 협상카드 제시
 - (반도체) 국내 생산 계획에 따라 미국의 유휴장비 구입, 수요산업에 대한 투자 협력
 - (자동차) 중국 배제 자동차 공급망 구축 및 우회수출 방지, 자동차 안전, 환경 기준 조정,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 물량 확대
 - (철강) 첨단 철강 소재 중심의 기술 협력 제안, 상호 투자 확대, 조선산업과 연계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 (의약) 미국 공급망 안정을 위한 원료의약품(API) 공동생산, 공동 R&D, 한국 내 임상시험 인프라 지원 및 약가제도 개선

1. (수입+수출+미국내 생산)에서 미국 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미국 내수시장에서의 미국 생산 점유율

DMSI by Manufacturing Sector (2024 Q1)



Source: U.S. Census,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CPA Calculations

03. 결론 및 대응방향

01 장 제목을 입력하세요. 02 03 04 05

3.3 중장기 대응방안: 한미 산업협력 전략 마련 및 수출 다변화

- ◆ 미국의 생산 공백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수출 확대
- ◆ 한미 연계 공급망 구축을 위한 대미 전략적 밸류체인 구축

한미 연계 공급망 구축을 위한 대미 전략적 밸류체인 구축

>> 美 제조 생태계 공백을 고려한 한-미 전략적 밸류체인 구축

- 미국의 산업 공백 영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 미국의 제조 생태계에서 한국의 기여가 가능한 부문에 대한 전략적 산업 협력 확대
 - 자국 내 생산 역량 확대를 추진하나, 기술·공정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고비용 구조로 인해 타국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 공략
 - 공백 산업 분야에 대한 한-미 합작 투자 및 합작 법인 확대
 - 美 자체 생산 능력이 부족한 첨단기술, 핵심 부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 품목 다변화
 - 산업별 현지 투자 확대 대상 품목 식별 및 금융세제 지원 정책 마련 필요

업종별 리스크 관리 및 유력 협력 산업 대미 공략 전략 수립

>> 업종별 리스크 관리 조치 수립 및 추진

-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지속 및 확대에 대비하여 미국 내 현지생산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 부품의 경우 면제 가능성 시사한 바 있으며 면제될 경우 우리 부품 수출 확대 가능성 있으며 미국내 국내 기업 뿐 아니라 해외 기업 수요처 확대
- (반도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로 한국 기업의 중국 생산 리스크에 대한 관리 필요
 -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기반한 美 기업 생산 역량 강화 추세에 대응, 미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 확대 및 미 정부와의 협의 채널 강화
- (배터리) 대중 고율 관세로 인한 반사이익 기대되나 정책적 불확실성 증가, 생산 투자 속도 조절, 포트폴리오 다각화, R&D에 대한 적극적 투자

유력 협력 산업 대미 공략 전략 수립

>> 美 수요 산업의 한미 산업 협력 및 수출 확대 방안 수립

- (조선) 안보 차원의 한미협력으로 선박·기술·MRO·연관 제품 수출 확대 기대, 핵심기술·인력·산업생태계에 대한 전방위적 투자 필요
 - (선박) 美 전략상선대 확충, 해군투자에서 특수선 MRO 및 신조 기뢰: 250척의 전략상선대 확충을 위해 단기적으로 우방국 선박 활용 가능성, 해군 특수선 MRO 및 신조
 - (조선소) 한화오션의 美 필리핀조선소 인수, HD현대의 HII(현팅턴 잉걸스) MOU 등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직·간접 진출, 직간접적 美조선산업 진출을 통해 기술 및 기자재 수출 확대 예상
 - (글로벌 상선) 美인항 중국해운사(운영사) 선박과 비중국국적운영사의 중국산 선박, 외국산 자동차운반선에 10.14일 이후 항세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
 - 미국 대비 월등한 조선 기술·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기회이므로 핵심기술·인력·산업생태계 투자 확대 필요
- (방위산업)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조선·항공 등 미국의 취약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
 - (대미수출) 조선·항공·항공 등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
 - 조선·항공 분야 MRO, 신규 군함 건조시장 등 미국의 공급망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진입 기회 확보 가능
 -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 2.75인치 유도로켓 사업 등 주요 수출사업의 수주 가능성 활용
 - (신규 군함건조 시장 진출) MRO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미국 신규 군함건조 시장 진출 추진

감사합니다.

발표 3

트럼프 2기 관세 협상과 서울경제

박희석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025년
제3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트럼프 2기 이후 세계 정세 변화와 서울의 대응 전략





목차

1. Why 관세 협상 인가?
2. 관세 협상의 득과 실...
3. 관세 부과, 서울경제 위기를 기회로

CHAPTER 01

Why 관세 협상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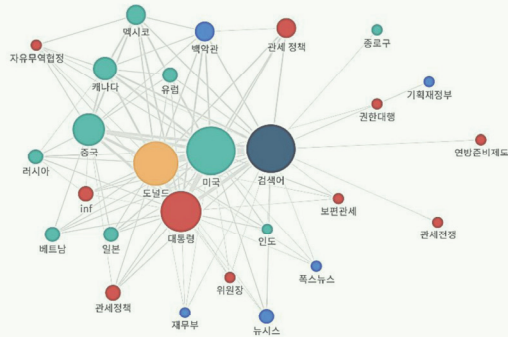
CHAPTER

01 Why 관세 협상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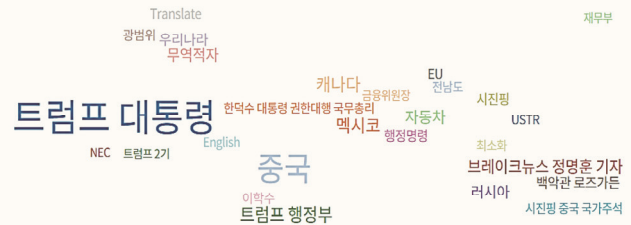
● 빅데이터 분석 결과 : 관세+서울+경제, 2025.1.1.~7.3

- 관계도 : ① 미국 > ② 도널드 > ③ 대통령 > ④ 중국 > ⑤ 캐나다
- 연관어 : ① 트럼프 대통령 > ② 중국 > ③ 멕시코

〈 관계도 〉



〈 연관어 〉



01 Why 관세 협상 인가?

● 정책 배경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력은 ①정치, ②경제, ③국가 안보 등 복합적인 이슈에 기인

요인	주요 내용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슬로건 (대중 문화 현상으로 확산 정치, 문화, 예술 등에도 활용) 경제적 이슈 (일자리 창출, 산업보호, 제조업 부흥, Reshoring, FTA 재협상)
보호무역주의 확대 (Protection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산업 (철강, 배터리, 반도체)의 경쟁력 상실 자국산업 보호, 수입 규제(관세)로 대응
탈세계화 (De-glob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2001년 중국 가입) 체계 탈피 (2025.3 트럼프 행정부 분담금 지급 중단) (양자+자국) 중심 공급망으로 전략 변경
대중 무역 견제 (Restraining Trade with Ch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기술 유출 등 국가 안보 위협 고율 관세 부과, 무역 특혜 지위 철회, 원산지 규제 강화
IRA 폐지 (Inflation Reduction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den 정부의 실책 백지화 (보조금 지급)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 탄소규제 완화

01 Why 관세 협상 인가?

● 주요 대상 국가(멕시코, 캐나다, 중국, 한국 등)별 관세 인상 원인

- 관세인상의 원인은 ①무역수지 개선, ②국방비 분담, ③국경관리, ④무역협상 등 복합적으로 작용
-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는 2020년 부터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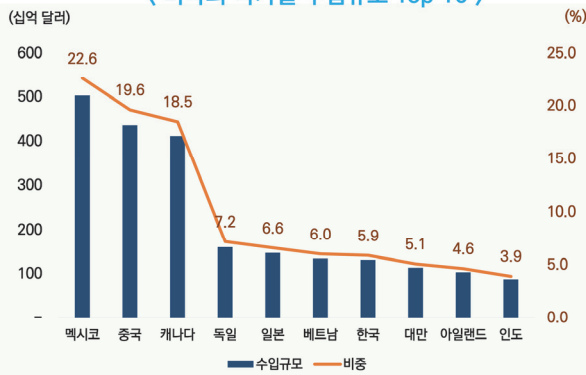
수입규모 (2024)	무역수지	국방 (방위비 분담)	국경관리 (팬터놀)	국경관리 (밀입국)	멕시코 (\$503B)무역협상
멕시코 (\$503B)	○		○	○	NAFTA (1992~2018) USMCA (2018~)
캐나다 (\$411B)	○		○		
중국 (\$436B)	○		○		
한국 (\$131B)	○	○			FTA (2011~)

※ 관세국경보호청 예산 \$17.5B(23Y)를 국경 관리비용으로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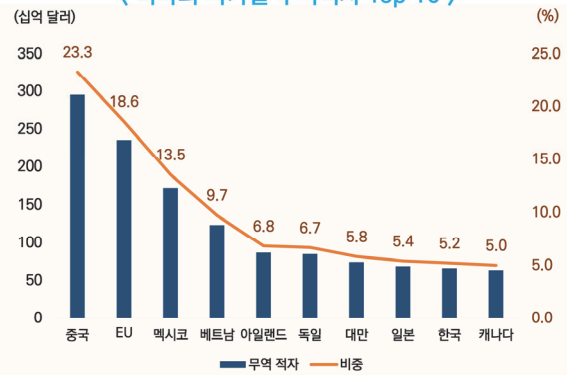
01 Why 관세 협상 인가?

- 미국 Top 10 교역국 무역규모는 \$2,225B, 적자규모는 \$1,270B
 - 한국은 미국의 7번째 수입국 (\$131B, 5.9%), 9번째 무역수지 적자국 (\$66.0B, 5.2%)
 - 무역 및 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주요 타겟

〈 미국의 국가별 수입규모 Top 10 〉



〈 미국의 국가별 무역적자 Top 10 〉



01 Why 관세 협상 인가?

- 관세 정책의 근거 및 History
 - 관세는 ① 무역확장법 232조, ② 무역법, ③ 국제비상경제제한법에 근거하여 부과
 - 수입제한 조치 : 철강(232조), 알루미늄(232조)
 - 기타 품목 : 자동차(4월), 자동차 부품(5월), 향후 구리(12월), 목재 (12월) 등 예상

법안	내용
미국 헌법 1조 8절	• 관세에 대한 권한 의회에 부여
적성국교역법 (Trading with the Enemy Act 1917)	• 전쟁 중 적성국과 무역 통제 및 자산 동결
무역확장법 232조* (Section 232, Trade Expansion Act of 1962)	• Kennedy 제안, 동맹국과 국제적 공조 필요 • 냉전시대 미국 위주의 자유주의 경제구조에 편입 • 대통령에게 무역에 관한 권한 부여(동맹국 중심 최대 50%까지 관세 인하) •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 소항으로 작용
무역법* (Trade Act 1974)	• 브레튼우즈체제 마감(1971), 닉슨 금태환 중지 닉슨 쇼크 • '적성국교역법'에 근거 일괄적 관세를 10% 부과
국제비상경제제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Powers Act 1977)	• 외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USTR 조사 후 행정부가 조치 • 상호관세도 이에 근거, Section 301(슈퍼 301조)
	• '적성국교역법'으로 닉슨의 관세부과 등의 악용을 견제

CHAPTER 02

관세 협상의 득과 실...

CHAPTER

02 관세 협상의 득과 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 역사학자의 관세에 대한 시각

- 19C 후반 미국을 제외, 국제적으로 자유무역 체계가 확립 (신·고전학파, 비교우위)
- Niall Ferguson(역사학자), Sarah Paine(역사학자) : 자유무역에 기초한 WTO(1995)가 출범 이후 30년 정도 유지, 역사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국익에 더 효과

● 정치적으로 고관세 적용 사례

- 미국은 대공황 시기 보호무역주의로 정책기조 전환
- Smoot-Hawley Tariff Act(1930) 제정으로 특정 품목에 고관세 부과, 정치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화 촉발

● 관세의 역할

- $3R + \alpha$: **R**evenue(세수)/**R**estriction(규제)/**R**eciprocity(상호성) + α (외교적 정책 수단)
- FTA 체결, 규제 등의 정도에 따라 각 비중은 상이하게 적용
- 3R을 모두 충족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관세는 정책적 한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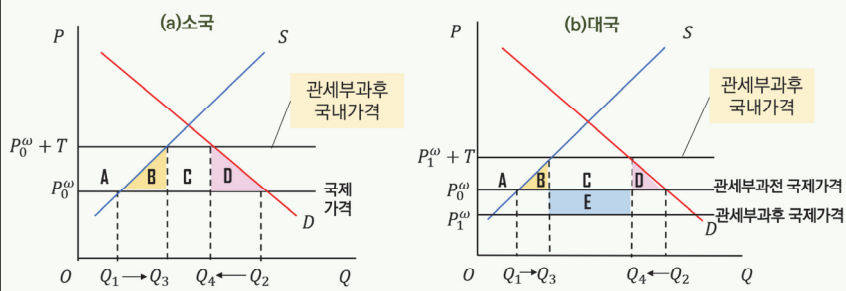
10

02 관세 협상의 득과 실...

● 국제무역이론 : 비교우위론 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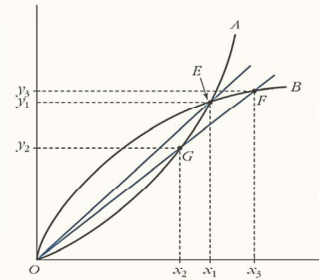
- 관세부과로 대국의 소비자잉여(상대적으로 적게 감소), 정부수입(증가), 교역조건(개선)
- 전반적 거시경제적 효과 : ① 세계화로 생산기지 이동, ② 제조업 부흥, ③ 세수 확대, ④ 다국적기업 유치, ⑤ 무역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개선

< 대국과 소국의 관세 효과 >



(정병열 경제학 연습 참조)

< Offer Curv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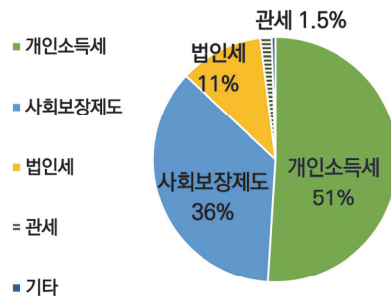
02 관세 협상의 득과 실...

● 미국 총세수(\$4,900B) 중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 연방정부 세입기준(2024) 세수는 ① 개인소득세(51%) > ② 사회보장제도(36%) > ③ 법인세(11%) 순
-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는 1%대로 미비

● Paolo Confino (2025.3.28.) : 트럼프 관세로 총세수 증가는 향후 10년간 \$800B 추정

(Trump tariffs could gross \$800 billion in the next decade, CBO head says—but that doesn't account for the backlash)



● 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상이

- 관세 부과 수준(관세율), 품목 등에 따라 거시경제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상존
- 경제적 효과는 시간적으로 상이하며, 국제무역에서 다자간 경제적 후생을 위해선 적정 관세 유지가 필요

〈 관세 협상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국내산업 보호 (수입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	수입품 가격 상승 (수입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구매비용 증가, 생활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잉여 감소)
무역불균형 해소 (관세를 통한 수입물량 조정으로 무역적자 해소)	무역갈등 심화 (관세 부가에 따른 국가간 무역 분쟁 심화 및 국제무역 질서 혼재)
재정수입 확보 (추가적인 재정수입 증가로 공공서비스 개선, SOC 확충에 활용)	경제성장을 둔화 및 고용 감소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투자 감소 등 성장을 둔화로 고용 감소)
국가 안보 강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산업기반을 육성하고 견제하는 대외정책 수단)	글로벌 공급망 혼란 (특정 품목의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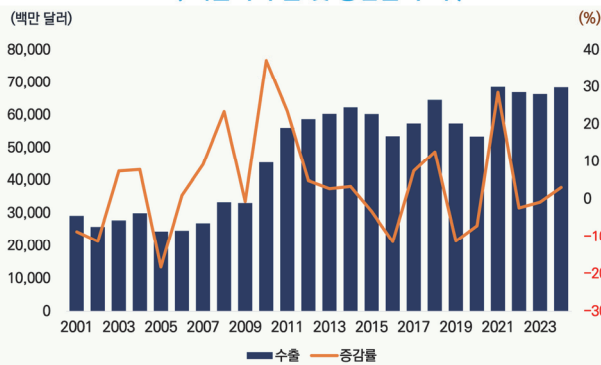
CHAPTER 03

관세 부과, 서울경제 위기를 기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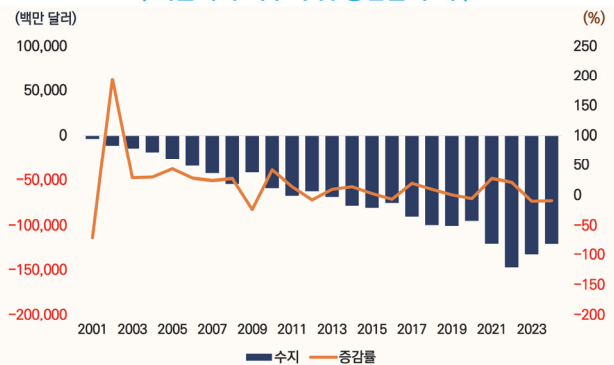
CHAPTER 03 관세 부과, 서울경제 위기를 기회로

- 서울은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로 적자 폭은 확대
 - 서울의 수출은 2010년 기점으로, 2001~2009 평균 \$28.4B에서 2011~2024 평균 \$61B로 2.15배 상승
 - 소비 및 서비스 산업 위주의 서울경제 특성상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

〈 서울의 수출 및 증감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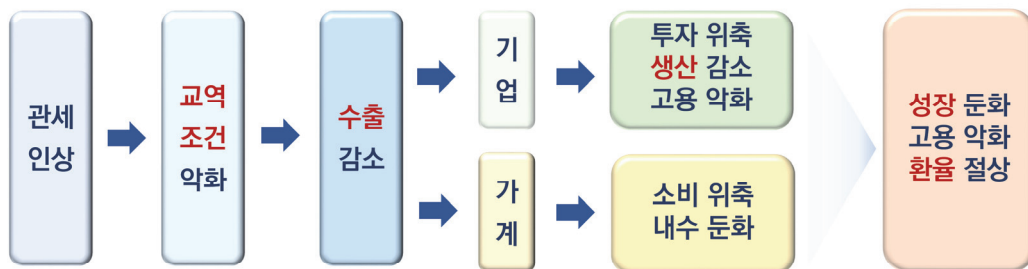
〈 서울의 무역수지 및 증감률 추이 〉



CHAPTER 03 관세 부과, 서울경제 위기를 기회로

- 관세 인상의 실물적 파급경로
 - 관세 인상은 실물부분과 금융부분(외환 및 증권시장 등)에 미치는 파급경로는 상이
 - 교역조건 악화는 수출감소로 야기, 기업 및 가계에 부정적인 영향
 -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하락 및 둔화

〈 관세 인상의 파급 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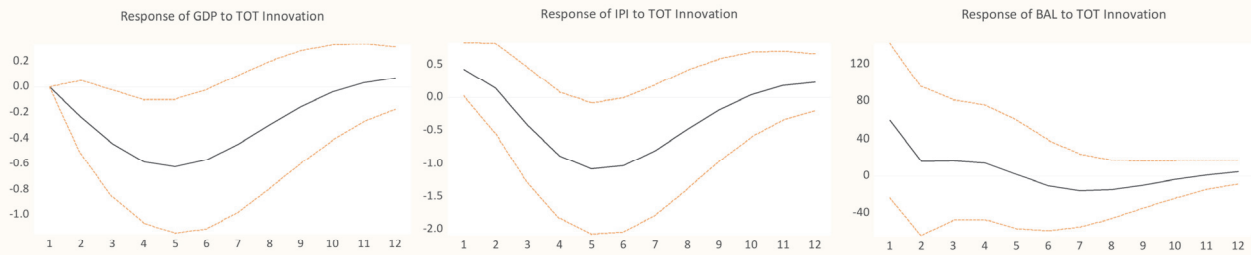


03 관세 부과, 서울경제 위기를 기회로

● 교역조건 악화는 국내 경제 성장률 및 산업생산을 하락

-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경제성장률, 산업생산, 무역수지, 환율, 교역조건)하에 동태적인 분석(SVAR) 결과 교역조건 악화는 한국 및 서울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시사
- 중기적으로 성장률은 10분기, 산업생산은 9분기 동안 하락, 무역수지는 시차를 두고 6~10분기 이후 하락

〈 교역조건 악화시 충격반응 분석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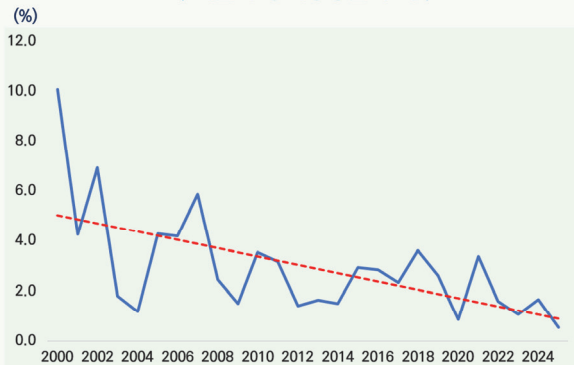


03 관세 부과, 서울경제 위기를 기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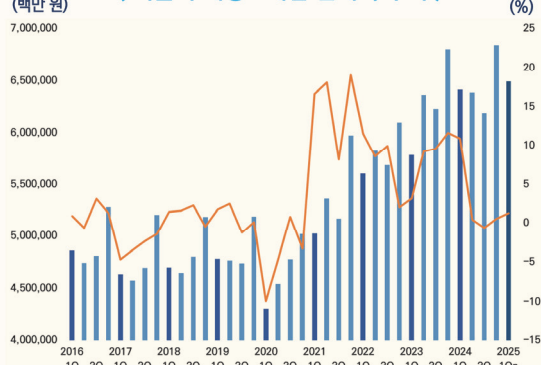
● 트럼프 관세 인상, 서울의 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

- 서울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 2025년 0.5%의 성장 전망, 내수 성장세도 2021년을 기점으로 하락
- 트럼프 관세 협상은 전국의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고, 간접적으로 서울의 성장률 하락에 영향

〈 서울시 경제성장률 추이 〉



〈 서울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추이 〉



- 관세 부과 단기적으로 서울경제에 부정적 영향, 장기적으로 서울경제의 체질 개선 및 서비스업의 등 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회
 - 정보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등 주력 산업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제도-규제개혁, 기업의 R&D 투자 유도, 유연한 노동시장 기반 마련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서울 소재 중소 대미 수출기업 대상 중앙부처, 관련 기관과 연계된 통합 지원 창구 마련, 핵심 품목의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한 종합컨설팅 지원
 - KOTRA, 관세청, 중앙부처(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SBA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 K-푸드, 화장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바이오헬스 품목의 대미 수출절차 컨설팅, 해외시장 다변화 지원
- 저성장,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층 노동력 활용으로 잠재성장을 견인과 소상공인 내실화,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내수 기반 유지
 - 고령층 경험 및 기술이 활용 가능한 일자리 기회 확대,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으로 소득기반 유지
 -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일자리 제공 등으로 서비스업 건설화

- 타일러 볼카요? (25.2.24), 관세정책은 왜 하는 걸까 | 트럼프 관세 정책 뒤 숨은 의도들 <https://youtu.be/quBvZu7sLSs>
- 김지윤의 지식 Play (2025.4.2.), 자유무역 아니었나?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유! | 트럼프, 미국, 관세 <https://youtu.be/quBvZu7sLSs>
- Paolo Confino (2025.3.28.) Trump tariffs could gross \$800 billion in the next decade, CBO head says—but that doesn't account for the backlash
- 남형우(2025.3.28.), 미 트럼프2기 정부의 무역정책의 이해와 대응요령, 중소기업중앙회 <https://youtu.be/ikt-ZS93b0Q>
- 한국언론재단, BIG kinds <https://www.bigkinds.or.kr/>
- 정병열, 경제학 연습

감사합니다

